

2018 공직자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

[2018. 4. 13 ~ 4. 21 / 동유럽·발칸 6개국]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목 차

| | |
|-------------------------------------|----|
| I. 국외 정책연수 개요 | 1 |
| II. 연수 국가 현황 | 4 |
| III. 주요 정책연수사항 | 7 |
| 1. 체코/프라하,체스키크롬로프 | 7 |
| 2. 오스트리아/뒤른스타인,할슈타트,비엔나,잘츠부르크 | 9 |
| 3. 크로아티아/플리트비체 | 12 |
| 4. 헝가리/부다페스트 | 12 |
| 5. 슬로베니아/블레드 | 14 |
| 6. 독일/로텐부르크 | 14 |
| IV. 주요 연수 결과 | 15 |
| 1. 환경정책 | 15 |
| 2. 교통정책 | 16 |
| 3. 도시·건설정책 | 18 |
| 4. 관광 및 일자리정책 | 19 |
| V. 시사점 | 20 |

I 국외 정책연수 개요

1. 연수 개요

○ (연수목적)

- 선진외국의 문화, 관광, 교통, 도시환경 등 우수 정책사례 수집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능력 배양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우수사례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 자연환경과 지역 건축물의 조화를 통한 도시경관, 도시재생 사례 비교 분석, 시정 및 의정활동 지원 발전방향 모색

○ (연수동기)

- 중세시대 이후 풍부한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동유럽·발칸 국가의 예술, 문화, 역사 탐방
- 동유럽·발칸 국가의 현지 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시·의정 발전방향 모색
- 선진도시의 유적지 등 관광명소 관리실태, 공공시설 및 특화거리 운영실태, 친환경 교통수단 및 미세먼지 저감 사례 등 비교분석

○ (연수기간) 2018. 4. 13(금) ~ 4. 21(토) / 7박 9일

○ (연수국가) 체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독일

2. 연수 참여자

| 연번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성 별 | 비 고 |
|----|-------------|--------------------|-----|-----|-----|
| 1 | 총 무 담 당 관 실 | 행 정 6 급 | 김영만 | 남 | 팀장 |
| 2 | | 운 영 7 급 | 정남선 | 여 | |
| 3 | | 시 간 제 다 급 | 박희애 | 여 | |
| 4 | 의 사 담 당 관 실 | 행 정 7 급 | 남경임 | 여 | |
| 5 | 입 법 정 책 실 | 행 정 6 급 (일반임기제) | 장래숙 | 여 | |
| 6 | | 시 간 제 다 급 | 고봉선 | 여 | |

3. 연수 동선



4. 연수 일정

| 월일 (요일) | 방문국 | 지 역 | 교통편 | 주요 일정 |
|----------------|--------------------|------------------------------|-----------------|--|
| 제1일 4.13(금) | 대한민국 독일 | 인 천 프랑크푸르트 테네스베르크 | OZ541 차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공항 출국수속 이동(인천→ 프랑크푸르트) / 12:30 프랑크푸르트공항 입국수속 이동(프랑크푸르트→ 테네스베르크), 호텔 |
| 제2일 4.14(토) | 독일 체코 | 테네스베르크 프라하 | 차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를교, 틴교회 방문 바츨라프광장, 천문시계 현장견학 트램 교통수단 체험 및 주차시스템 견학 프라하 야경 견학 |
| 제3일 4.15(일) | 체코 오스트리아 | 체스키크룸노프 비엔나 | 차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스키크룸노프 시청사 현장견학 뒤른스타인 방문 및 비교견학 |
| 제4일 4.16(월) | 오스트리아 헝가리 | 비엔나 부다페스트 | 차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웬부른 궁전, 슈테판 성당 등 유적지 현장방문 케른트너 거리 등 특화거리 비교견학 부다페스트 야경 견학 |
| 제5일 4.17(화) | 헝가리 크로아티아 | 부다페스트 플리트비체 | 차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사당, 부다왕궁 방문 성 이슈테판 대성당 현장견학 어부의요새, 겔레르트언덕, 영웅광장 현장견학 |
| 제6일 4.18(수) |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 플리트비체 블레드 | 차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방문 블레드 섬, 블레드 성 현장견학 |
| 제7일 4.19(목) |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 블레드 잘츠부르크 | 차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슈타트 마을 비교견학 미라벨 정원, 호엔잘츠부르크 성 방문 모짜르트 생가, 잘츠부르크 대성당, 게트라이데 거리 비교견학 트램 등 교통수단 체험 및 친환경시설 견학 |
| 제8일 4.20(금) | 오스트리아 독일 | 잘츠부르크 로텐부르크 프랑크푸르트 | 차량 OZ54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텐부르크 시청사, 성 야콥 교회 현장방문 마르크트 광장 등 시가지 등 특화거리 체험 이동(프랑크푸르트→ 인천) / 19:00 호텔(기내) |
| 제9일 4.21(토) | 대한민국 | 인천 | 차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공항 입국수속 |

II 연수 국가 현황

【체 코】

- (국 명) 체코 공화국(The Czech Republic)
- (수 도) 프라하
- (면 적) 78,867km²
- (인 구) 약 10,625,000명(2018년 통계청 기준)
- (명목GDP) 2,132억\$ 세계48위 (2018 IMF 기준)
- (1인당GDP) 2만3750\$ 세계40위 (2018 IMF 기준)
- (화폐단위) 코루나(Koruna) ※코루나/25=유로, 2018년말 유로공용화 예정
- (언 어) 공용어: 체코어/ 상용어: 영어, 독일어
- (종 교) 가톨릭(39%), 개신교(6%), 무교(40%) 등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오스트리아】

- (국 명) 오스트리아 공화국(Republic of Austria)
- (수 도) 빈(비엔나)
- (면 적) 83,871km²
- (인 구) 약 8,752,000명(2018년 통계청 기준)
- (명목GDP) 4,168억\$ 세계28위 (2018 IMF 기준)
- (1인당GDP) 5만3764\$ 세계13위 (2018 IMF 기준)
- (화폐단위) 유로(EURO)
- (언 어) 독일어
- (종 교) 가톨릭(74%), 개신교(4.6%), 이슬람교(4.3%) 등
- (정부형태) 연방공화제

【크로아티아】

- (국 명) 크로아티아 공화국(Republic of Croatia)
- (수 도) 자그레브(Zagreb)
- (면 적) 56,597km²
- (인 구) 약 4,165,000명(2018년 통계청 기준)
- (명목GDP) 545억\$ 세계78위 (2018 IMF 기준)
- (1인당GDP) 1만4788\$ 세계59위 (2018 IMF 기준)
- (화폐단위) 쿠나(Kuna) ※쿠나/7≒유로
- (언 어) 크로아티아어
- (종 교) 가톨릭(87.8%), 세르비아정교(4.4%), 이슬람교(1%) 등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

【헝가리】

- (국 명) 헝가리 공화국(Republic of Hungary)
- (수 도) 부다페스트(Budapest)
- (면 적) 93,028km²
- (인 구) 약 9,689,000명(2018년 통계청 기준)
- (명목GDP) 1,523억\$ 세계57위 (2018 IMF 기준)
- (1인당GDP) 1만6723\$ 세계53위 (2018 IMF 기준)
- (화폐단위) 포린트(forint) HUF, Ft로 표기 ※포린트×4≒한화
- (언 어) 헝가리어
- (종 교) 가톨릭(51.9%), 칼빈교(15.9%), 루터교(3.0%) 등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단원제 의회)

【슬로베니아】

- (국 명) 슬로베니아 공화국(Republic of Slovenia)
- (수 도) 류블랴나(Ljubljana)
- (면 적) 20,273km²
- (인 구) 약 2,081,000명(2018년 통계청 기준)
- (명목GDP) 498억\$ 세계82위 (2018 IMF 기준)
- (1인당GDP) 2만7536\$ 세계36위 (2018 IMF 기준)
- (화폐단위) 유로(EURO)
- (언 어) 슬로베니아어
- (종 교) 가톨릭(57.8%), 이슬람교(2.4%) 등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

【독 일】

- (국 명)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수 도) 베를린(Berlin)
- (면 적) 357,022km²
- (인 구) 약 82,114,000명(2017년 OECD 주요지표 기준)
- (명목GDP) 4조2116억\$ 세계4위 (2018 IMF 기준)
- (1인당GDP) 5만842\$ 세계16위 (2018 IMF 기준)
- (화폐단위) 유로(EURO)
- (언 어) 독일어
- (종 교) 가톨릭(34%), 개신교(34%), 이슬람교(3.7%) 등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Ⅲ 주요 정책연수사항

1. 체코 / 프라하, 체스키크롬로프

✓ 프라하

- 프라하의 봄과 1989년의 ‘벨벳 혁명’ 이후 마침내 자유의 길로 접어든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도심 자체가 화려한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살아있는 건축박물관으로 불림.
-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프라하 성에는 비투스 대성당, 왕국의 유적 등이 있으며 현재 대통령 관저가 있어 입장시 보안검사를 함.
- 구시가지는 얀 후스 동상, 틴성당, 구 시청사 천문시계가 주요 관광지로 꼽히며 방문한 날 천문시계는 보수공사 중이었음.
- 9번 트램을 탑승해 신시가지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 트램이라는 대중교통 수단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잇는 편리한 관광코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 구시가지 광장과 바츨라프 광장 사이에는 하벨시장(HAVELSKE TRZISTE)이라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과일, 채소, 꽃, 과자, 기념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음.



하벨시장(HAVELSKE TRZISTE) 방문



카를교 앞

- 신시가지와 프라하 성을 연결해주는 카를교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 하나이고 프라하 성과 블타바 강변을 배경으로 한 야경은 프라하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요소임.

✓ 체스키크롬로프

- 중세부터 프라하와 소금이 풍부한 찰츠부르크를 연결하는 소금길에 위치하여 상인들의 통로 역할을 해온 이 곳은 13세기 물건을 약탈하던 산도적을 소탕한 비스코비치 가문이 영주가 되어 성을 쌓으면서 역사가 시작됨.
- 진입로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망토다리로 11세기에 건립을 시작했는데 경사진 체스키크롬로프 성의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아치형의 다리임.
- 체스키크롬로프 시청사 건물이 있는 스포르노티 광장에는 상점, 카페, 레스토랑, 호텔 등이 있어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 시청사 건물에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함께 있어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세시대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장소에서 QR코드로 바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관광정보는 시대융합적인 풍경이었음.



체스키크롬로프 인포메이션 센터



체스키크롬로프 시청사 방문

2. 오스트리아 / 뉘른스타인, 할슈타트, 비엔나, 잘츠부르크

✓ 뉘른스타인

- 뉘른스타인 성은 1192년부터 1년 동안 영국의 리처드 왕이 제3차 십자군 전쟁 시 억류되었던 장소로 유명한데, 현재 성터의 일부가 남아있음.
- 왕복 약 40여분이 걸리는 뉘른스타인 성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을 풍경은 힘들게 올라온 것을 보상하고도 남음.
- 리버크루즈 선착장 강 건너편에는 캠핑카들이 줄이어 있는 풍경이 연출되었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장소로 활용되고 있었음.

✓ 할슈타트

- 할슈타트에서 ‘할(Hal)’은 켈트어로 ‘소금’을 ‘슈타트(Statt)’는 ‘도시’를 뜻하는데, 세계 최초의 소금광산이 개발된 곳임.
- 마을 입구에서 오래된 소금광산으로 올라가는 푸니쿨라를 타면 스카이 워크 전망대에서 마을과 호수의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는데,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명소임.



뉘른스타인 선착장



할슈타트 푸니쿨라 매표소

✓ 비엔나

-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1위 도시로 국제 원자력기구(IAEA),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세계적인 주요기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춘 도시임.
- 국립 오페라 극장, 벨베데레 궁전, 쉰부른 궁전, 슈테판 성당 등 주요 유적지가 있으며, 슈테판 광장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도로인 케른트너 거리는 비엔나에서 가장 화려하고 변화한 거리임.
- 벨베데레 상궁은 현재 미술관으로 사용중인데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인 <키스>가 영구 전시되어 있으며, 에곤 실레의 작품 등도 전시되어 있음.
- 비엔나 대학교는 비엔나 전체적으로 60여 군데 흩어져 캠퍼스가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학과가 있는 건물의 경우 종합병원이었던 건물을 더 크게 증 개축하여 1990년대부터 캠퍼스로 활용하고 있었음.
- 차량과 트램이 한 노선에 같이 다니는 혼용노선의 경우 트램이 들어오면 일반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비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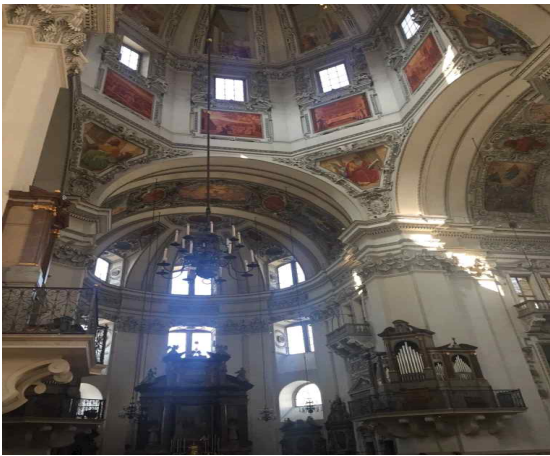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비엔나 트램(일반차량 혼용노선)

✓ 짤짤부르크

- 모차르트와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시로 유명한 짤짤부르크는 미라벨 정원, 호엔짤짤부르크 성, 모차르트 생가, 짤짤부르크 대성당이 주요 명소임.
- 게트라이데 거리는 연철 간판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소금 무역으로 부자가 된 도시의 골목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로 붐비고 있음.
- 미라벨정원은 17세기에 바로크 스타일로 디자인된 것으로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도레미 송’을 불렀던 곳으로 더욱 유명해진 정원이 있음.
- 짤짤부르크 대성당의 돔은 르네상스의 말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바로크식 건축물로 유럽에서 가장 크다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음.
- 터미널에 일렬로 늘어선 자전거가 인상적이었으며, 시내 곳곳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는 현지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음.



짤짤부르크 대성당 내 파이프 오르간



게트라이데 거리 우산가게



짤짤부르크 터미널



짤짤감머구트 유람선 선착장

3. 크로아티아 / 플리트비체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1979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음.
- 수년간 석회암, 백악층의 유입물질이 침전호수를 만들어 천연의 댐을 이루고 아름다운 호수와 동굴, 폭포가 형성되어 있는 이 곳은 생태계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덕분에 유럽의 생태관광(Ecotourism)을 대표함.
- 이곳에서는 수영, 쓰레기버리기, 낚시, 사냥, 큰소리 지르기, 캠핑 등 사람들이 하면 안 될 행동들을 국립공원 입장 티켓에 표기해 두었음.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입장권 앞/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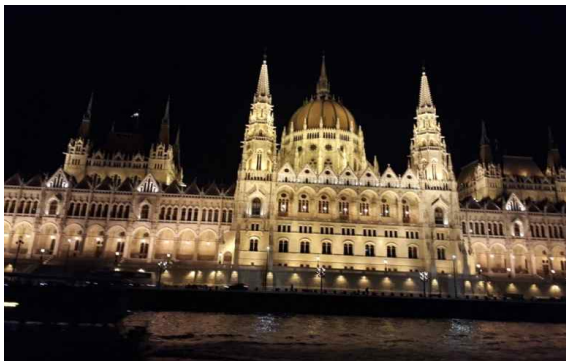


MILKE TRNINE 폭포

4. 헝가리 / 부다페스트

- 19세기 ‘세체니 란치드’ 다리(일명 체인다리)가 건립되면서 부다 지역과 페스트 지역을 연결하는 부다페스트가 탄생함.
- 부다페스트에는 어부의 요새, 마차시교회, 부다왕국, 겔레르트 언덕, 국회의사당, 성 이슈테판 대성당, 영웅광장 등이 주요 명소임.

- 1884년에 착공해 1904년에 완공된 국회의사당은 정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설계로 다뉴브 야간유람선에서 바라본 모습은 세계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님.
- 건국 1,000년을 기념해 조성된 영웅광장은 헝가리의 위대한 왕들과 위인 14명의 동상이 둥그런 모양으로 서 있고 부다페스트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자리잡고 있음.
- 부다페스트 아이 근처에 있는 신 시청사 건물은 구 버스터미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어부의 요새 입구에 작은 조형물은 어부의 요새의 전체적인 모습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다뉴브 야간유람선에서 본 국회의사당



영웅광장 내 부다페스트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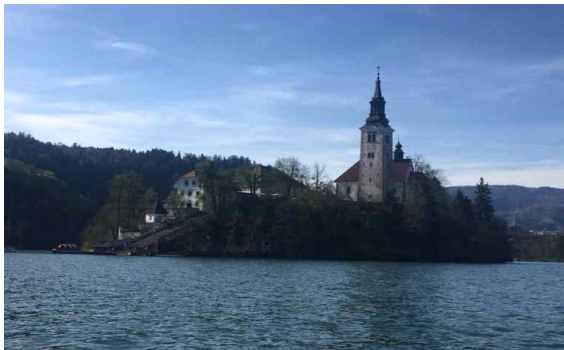
부다페스트가 한눈에 들어오는 겔레르트 언덕



점자로 안내하는 '어부의 요새' 조형물

5. 슬로베니아 / 블레드

- 호수 위로 솟아있는 블레드 성과 낭만적인 블레드 섬은 슬로베니아 최고의 자연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음.
- 블레드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동력 플레트나 보트를 타고 가야하는데, 옥색의 호수를 깨끗하게 지키고자 하는 현지 정책이 반영되어 있음.
- 블레드 성에서 바라본 블레드 섬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한데, 정책 연수지역 중 유일하게 한글 안내문을 볼 수 있는 곳이었음.



한 폭의 그림같은 블레드 섬



블레드 성 입장권과 한글 안내문

6. 독일 / 로텐부르크

- 21세기에 만나는 중세도시 로텐부르크는 ‘중세의 보석’이라 일컬어지며,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에 이르고 있음.
- 마르크트 광장의 시청사 탑 전망대는 로텐부르크 시내와 타우버 계곡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명소이고, 독일을 대표하는 전통과자인 ‘슈니발렌’이 이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짐.



로텐부르크 시청사



독일 전통과자 ‘슈니발렌’

IV 주요 연수 결과

1. 환경정책

✓ EU 미세먼지 대책

- 유럽연합은 유럽 전체의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한 후 개별 회원국이 대기질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를 유럽연합 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개별국가의 미세먼지 정책은 런던, 베를린, 파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동유럽/발칸 국가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양호한 편이었음.
- 유럽 환경실천프로그램(The Six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y, EAP), HEAVEN, 공해차량 제한 지역(Low Emission Zone, LEZ)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질 보전을 위한 유럽연합 공동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자전거도로 활성화

- 오스트리아, 체코 등 주요 연수국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자전거도로는 시민의 이동수단과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활성화 되어 있음.
- 특히 자전거도로 내에서 보행자와의 사고시 보행자가 대인/대물 사고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엄격한 관련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비엔나 자전거도로



도심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소

2. 교통정책

✓ 타코(Tacho)

- 유럽의 관광버스는 ‘타코’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자동으로 운행속도와 정차시간 등이 기록되고 있음.
- 하루 운행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4시간 30분 안에 45분 의무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며, 운행이 끝나고 반드시 11시간 휴식 후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와 승객을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임.



구형 타코



신형 타코

✓ 프라하 새 주차시스템

- 프라하 시내 도로변은 최근 새로운 주차시스템 도입으로 거주자 주차구역 (P RESERVE)과 일반 주차구역(P 주차미터표시)으로 구분되고 있음.
- 일반주차의 경우 주차공간이 있다면 차량을 주차한 후 원하는 시간만큼 동전이나 카드로 요금 정산이 가능함.



거주자/일반 주차구역 안내



하얀색으로 표시된 일반주차구역

✓ 프라하 트램

- 1891년부터 운행을 시작하였고 2018년 현재 두 칸짜리 구형과 지하철과 비슷하게 생긴 신형이 동시에 운영중임.
- 트램 전용구간과 일반차량(버스)과의 혼용구간은 각각 50% 수준이며 혼용구간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는 종종 발생하나 사고위험률은 낮은편임.
- 프라하 주요 관광지에 트램노선이 연결되어 있고, 주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보조수단으로서 트램이 활용되고 있음.



프라하 구형트램



프라하 신형트램

✓ 비엔나 트램

- 비엔나의 트램 전용구간은 76%, 혼용구간은 24%임. 트램의 평균 주행속도는 50km/h이며 최고 주행속도는 약 60km/h임.
- 비엔나 교통카드는 1일권, 3일권, 1주일권, 1개월권, 1년권 등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이 정책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2012년부터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짐.



비엔나 트램 전용구간



비엔나 트램 혼용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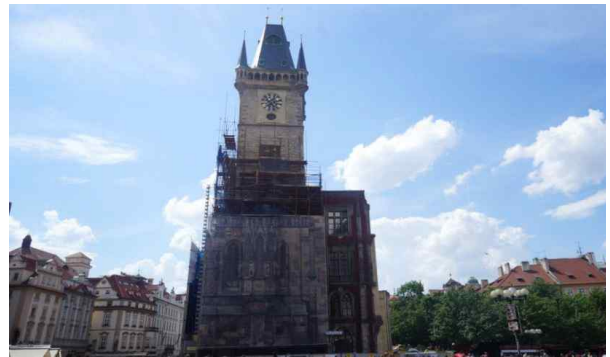
3. 도시·건설정책

✓ 보수공사

- 보수공사를 함에도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현수막 설치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
-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 내 국립자연사박물관 보수공사에 참여한 삼성의 현수막은 박물관 외관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광고효과도 있었음.
- 구시청사 천문시계 역시 외관을 그대로 살린 현수막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관광객들의 아쉬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엿볼 수 있었음.



국립자연사박물관 보수공사 현장



구시가지 천문시계 보수공사 현장

✓ 도시재생

- 부다페스트 신 시청사 건물은 구 버스터미널 부지를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한국학파가 있는 비엔나캠퍼스 건물은 기존의 종합병원을 증개축하여 캠퍼스로 재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공원으로 재조성된 부다페스트 신 시청사 앞



종합병원을 비엔나대학 캠퍼스로 재활용

4. 관광 및 일자리 정책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활용

- 프라하, 비엔나, 잘츠부르크, 부다페스트 등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었음.
- 할슈타트,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블레드 등은 천혜의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존하는 생태관광정책을 펼치고 있었음.



잘츠부르크 대성당 (문화유산)



할슈타트 (자연유산)

✓ 현지 가이드 의무고용

- 주요 관광지 투어시에는 관계법령상 현지인 가이드만 안내를 할 수 있고, 현지인 가이드가 있는지 현지 경찰이 직접 확인하는 사례가 있음.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의 질을 좌우하는 가이드는 외국어가 능통한 동시에 우리나라 관광 정보까지 갖추고 있는 인재이어야 함에도 저임금과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에 여행업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임.

V 시사점

1. 환경정책 시사점

✓ 대전·세종·충청권역 미세먼지 대책기구 등 도입 방안

-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단기/중장기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자체 자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관용차량의 운행감축, 소각장 운영제한, 도로청소차량 운영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대전·세종·충청권역의 공동 대책기구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대기관리권역(LEZ) 정책을 도입한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사례의 우리시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요구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자전거도로는 모두 235곳(총연장 755.06km)임.
- 현재 친환경교통수단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용되는 자전거도로를 지역의 관광상품과 연계하고, 추가적으로 자전거도로 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교육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대전광역시 자전거도로(분홍색)



유성구 내 자전거도로 이용 시민들

2. 교통정책 시사점

✓ 타코(Tacho) 정책 도입 대정부 제안

- 주 52시간 이내 근무시간을 추진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광버스나 화물차의 ‘타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지난 2016년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DTG(Digital Tacho Graph)기록을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확대하여 운전자와 승객을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도입 방안을 제안함.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 홍보물



화물차에 설치된 DTG(디지털운행기록계)

✓ 트램 도입 전면 검토

- 민선6기에서 추진했던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의 노선 및 시공방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트램 선로 건설 구간의 세부방안(운행 경로, 시공방법, 포장재질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다시 필요한 시점임.
- 향후 민선7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정책 검토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이 보다 제고되어야 할 것임.

3. 관광 및 일자리정책 시사점

✓ 대전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정책

- 대전에는 특히 근대의 시간과 삶이 덧대어진 ‘공간’으로서 건축물들이 많이 있으나 대전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독립운동가들의 흔이 담긴 옛 대전형무소 망루와 우물, 대전의 근현대 80년을 안고 있는 옛 충남도청사, 대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근현대사 전시관, 옛 충남도지사 공관, 한국 현대사의 비극 산내 골령골 등을 근현대 역사투어 장소로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옛 대전형무소 망루



옛 충남도청사

- 또한 나무와 돌을 조각해 마을 입구에 세우는 장승은 예로부터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수호신 역할을 해왔는데 대전은 돌장승의 도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비룡동 줄곧장승, 범동 장승, 용운동 방이장승 등 돌장승이 많아 이와 관련한 관광상품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비룡동 줄곧장승 (여)



비룡동 줄곧장승 (남)

✓ 대전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정책

-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걷기여행길 10선’에 선정된 대청호 오백리길은 대전에 이런 풍광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특히 4구간 수변길은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알려져 있음.
- 4구간에 있는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시민의 생태체험관으로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어 이와 관련한 관광상품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한밭수목원, 400년 된 평촌동 증촌 느티나무, 정방마을 등 대전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상품 활성화가 필요함.

✓ 현지가이드 의무고용 일자리정책 대정부 제안

-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장년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 정책이 필요한데, 현지 가이드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현지 가이드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가이드 인력풀 확보 프로그램, 인식개선 교육 등의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